

프로농구 중위권 '박빙' 대혼전

2020-2021시즌 울스타 휴식기로 전반기 마무리 PO직행 티켓두고 1.5경기 차 4-7위 치열한 경쟁

프로농구 2020-2021시즌이 지난 13일 경기를 끝으로 울스타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원래 오는 18일까지 경기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16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부산kt전이 편성돼 울스타전이 열리지 않는 올해 울스타 휴식기에 농구 팬들의 '지루함'을 달래준다.

이 경기는 지난해 12월 25일 열리기로 꽤 있었지만 당시 인삼공사 변준형의 고열 증세 때문에 연기됐다.

전주 KCC가 최근 10연승을 내달리며 21승 8패, 2위에 3.5경기 앞선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KCC의 최근 패배는 무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인삼공사 전(79-83)이다.

국내 득점 1위 송교창(15.3점)과 '에이스' 이정현에 최강의 '외국인 선수 듀오'로 평가받는 타일러 데이비스와 라건아가 버티고 있다. 여기에 베테랑 사령탑 전찬진 감독과 '감독

급 코치' 강양택 코치가 이끄는 벤치 파워도 막강하다.

2위 고양 오리온(18승 12패)과 3위 울산 현대모비스(18승 13패)가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린 2위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위부터 7위까지 1.5경기 차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위 인삼공사가 16승 14패, 5위 부산 kt가 15승 14패를 기록 중이며 6위 인천 전자랜드는 16승 15패, 7위 서울 삼성이 15승 16패다. 이들 네 팀 중 한 팀이 6강 플레이오프 초대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삼공사가 가장 앞서 있지만 양희종이 발목 부상으로 한 달 정도 결장이 예상되고 오세근도 최근 6경기에서 10점 이상을 한 차례만 기록했다. 전자랜드는 최근 상무에서 전역한 정효근의 가세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개막 전에 우승 후보로 꼽혔던 서

울 SK는 최근 15경기에서 3승 12패로 부진, 8위(13승 18패)까지 내려갔다. 김선형, 최준용, 안영준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문경은 SK 감독은 13일 오리온과 원정 경기에서 73-85로 패한 뒤 "아무래도 많이 뛰지 않던 선수들이 중압감을 느끼다 보니 실책도 늘었다"며 "휴식기에 보완해서 나오겠다"고 다짐했다.

6위 전자랜드와는 3경기 차이로 아직 플레이오프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

캐디 라렌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9위 창원 LG(11승 19패)나 최하위 원주 DB(8승 22패)는 6강 경쟁에 가세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선수 개인 기록을 보면 국내 선수 득점 1위 송교창(KCC), 국내 리바운드 1위 양홍석(kt), 어시스트 1위 허훈(kt), 국내 득점과 어시스트 2위에 스틸 1위 이대성(오리온) 등이 돋보인다. 신인왕 부문은 오재현(SK)과 이윤기(전자랜드)의 경쟁이 치열하다.

연합뉴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4월 복귀 시동

UFC 페더급 3위 지목 "올해 최소 2승 목표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34)이 4월 복귀 목표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정찬성은 14일 UFC 홍보대행사 '커넥티비티'를 통해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으로 격투기 훈련은 할 수 없지만,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이 가능해 웨이트트레이닝 위주로 몸을 만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정찬성과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맞대결은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정찬성은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로 고개를 떨쳤다.

오르테가전 이후 정찬성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다음 상대로 자빗 마고메드 샤리포프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키 185cm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자랑하는 자빗은 2017년 UFC에 데뷔한 후 패배 없이 6연승을 질주하며 단숨에 페더급 랭킹 3위로 올라섰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연합뉴스

정찬성(5위)보다 두 계단 순위가 높은 그는 타격과 레슬링, 그라운드 3박자를 모두 갖춘 선수로 평가받지만 2019년 11월 이후 출전이 없다.

정찬성은 올해 두 경기 이상 출전해 최소 두 경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정찬성은 "(UFC 측에) 4월 출전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페더급 챔피언 도전에 대해선 "아직은 생각이 없고,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기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슛하는 '손세이셔널'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상대 선수를 앞에 두고 슛을 하고 있다.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의 두 차례 슈퍼 세이브와 골대 불운까지 겹치는 아쉬움 속에 리그 13호골 기회를 날렸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 됐다.

연합뉴스

'이재성 폴타임' 킬, 뮌헨 제압 이변

포칼서 승부차기 끝에 16강행 백승호의 다름슈타트와 대결

이재성(29)이 폴타임을 소화한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출신인 킬이 승부차기 끝에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을 꺾는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키고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6강에 올랐다.

출신인 킬은 14일(한국시간) 독일 킬의 홈구장인 슈타디온에서 열린 뮌헨과 2020-2021 DFB 포칼 2라운드(32강) 홈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2-2로 비기 뒤 승부차기에서 6-5로 승리했다.

뮌헨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1부)와 포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제패해 3관왕을 달성한 '최강팀'이다.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폴 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 팀의 4번째 키커로 승부차기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뮌헨은 전반 14분 토마스 뮐러가

헤딩으로 문전에 떨어뜨린 공을 킬의 골키퍼 이오아니스 켈리오스가 쳐내자 세르주 나브리가 이를 놓치지 않고 골 지역 오른쪽에서 제차 슈팅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선제골을 내준 킬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37분 야니크 뎀이 뒤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핀 바르텔스가 잡아 페널티 지역으로 쇄도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균형을 맞췄다.

1-1로 맞선 채 시작한 후반, 뮌헨은 리오이 자네의 왼발 프리킥으로 골망을 강하게 흔들었다.

킬은 후반 50분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 골을 터뜨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한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5-5로 맞선 상황, 드디어 승부가 갈렸다.

뮌헨의 6번째 키커 로카의 슈팅을 켈리오스가 막아냈고, 킬의 6번째 키커 바르텔스가 골 그물을 흔들면서 킬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16강에 오른 킬은 백승호의 소속팀 다름슈타트와 대결을 펼친다.

LPGA투어 신인왕 '구 신인 vs 새 신인'

6년 연속 한국선수 수상 기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1시즌의 '새 신인'은 지난해 US 오픈 챔피언 김아림(26) 등 5명이다. LPGA 투어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16개 대회만 치르면서 신인상 수상자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1시즌에는 2020년 '구 신인'들과 2021년 '새 신인'들이 한꺼번에 신인왕 경쟁을 벌인다. 2020년 신인 중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던 이들과 김아림 등이 새 시즌 신인왕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년 '새 신인'은 김아림 외에 2부 투어를 거쳐 올라온 4명까지 총 5명이다. 한국 선수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LPGA 투어 신인상을 독식했다.

2020년 신인 전지원과 손유정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6년 연속 한국 선수 신인상이 무산될 뻔했으나 코로나19로 시상이 사라지면서 2021년에 다시 기회가 생겼다.

연합뉴스

Gallery ED

그리고 Present

2020. 12. 16 WED ~ 1. 29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Close 18:00	주말 (±, 日)	Open 11:00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	---------------------------	--------------	---------------------------	--------------------------------------

한리일보